

JP정치의 ‘시대적 위업偉業’ 체계적 연구가 필요하다



이 달 순
수원대학교 명예교수

1. 들어가는 말

‘JP는 역사다’라고 했다. 역사연구의 틀은 첫째가 사관史觀이다. 자유민주주의 정치체제를 이 땅에 수립하고자 했던 JP의 노력을 바탕으로 하여야 한다. 그의 노력을 분석하고 JP의 사관을 정립하려한다. 둘째가 시대구분이다. 독일 사학자 트로이체는 “역사연구의 모든 노력은 시대구분에 귀착된다고 하였다. 우리는 절대주의-시민혁명-근대사회라는 일반모델을 적용하고 셋째는 정치발전의 모델이다. 정치발전은 시민혁명으로부터 비롯된다. 이에 정치발전을 단계적으로 논하면서 브린튼의 ‘혁명과 정론’을 인용하려한다. 그의 틀을 보자. 첫째단계는 지식인의 이반이다. 둘째 단계는 혁명의 발발이다. 셋째단계가 온건파의 지배다. 이때는 2중권력의 시대다. 넷째 단계가 쿠데타의 발발이다. 그 주도 세력이 정권을 장악하게 되는 데 이들이 다섯째 단계라는 과격파의 등장인 것이다. 과격파들은 정국을 안정시키고 경제 발전이라는 업적을 쌓게 되는 데 그 자만심은 소수의 음모로 장기 집권으로 이어지게 된다. 여섯째 단계는 독재자의 등장이다. 독재자는 비참한 말로末路를 맞는다. 일곱째 단계는 민주화와 역행하는 권위주의 복고라는 체제로 되돌아간다. 여덟째 단계는 권위주의 복고체제를 타도하는 민주시민의 노력으로 명예혁명을 통해 어렵게 민주시대로 들어선다. 이러한 모델에 JP는 앞에 닥친 장애물을 돌파하고 창의적 위업을 달성했다. 그 단계별 위업을 체계적으로 연구하여야 할 몫이 후학들에게 남겨진 것이다.

2. 민족적 민주주의

① 5.16혁명

4.19학생혁명에 뜻을 같이 하여 군부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정군 운동으로 시작해 이듬해 JP는 5.16 쿠데타를 성공시킨다. 5.16은 쿠데타인가 혁명인가는 정치학의 연구대상이다. H.R 스펜서는 “일반적으로 입헌立憲제도가 극도로 약할 때 그리고 그것이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정치적 경제적 불만을 해결하지 못 할 때 쿠데타는 성공한다”고 한 것이다. 브린튼은 “2중 주권의 시기는 쿠데타로 인해서 과격파가 권력을 계승하고 과격파들은 공포의 시대(Reign of Terror)를 또한 미덕美德의 시대에게끔 하는 혁명革命적 신념을 갖고 있다”고 주장한다. 4.19혁명의 과정 속에서 과격파로 등장한 5.16주체들은 조국근대화와 민족의 중흥을 표방하고 나섰다. 혁명은 기존질서既存秩序의 파괴이지만 새로운 질서의 창조創造라는 면에서 국가발전의 원동력이기도 하다. 때문에 혁명을 마무리 짓는 과격파는 역사상 쿠데타가 성공하면 국민의 지지를 얻어 혁명으로 승화昇華시킨다. 이에 쿠데타와 혁명의 성격 구분과 상관관계에 이르기 까지 체계적 연구가 필요한 것이다.

② 민주공화당 창당과 변질

민주공화당의 조직 원리는 일상불란한 당무처리를 위한 강력한 사무국체제였다 사무국은 중앙, 시, 도 지역구에 설치하고 명령 체계를 가진 위계적인 조직이 되도록 하였다. 공화당은 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는 정당 정부를 목표로 하였으나, 새로운 내각을 구성하는 과정

에서 이미 기대에 어긋나고 있었다. 대통령 당선자가 내각에 대부분 관료 출신을 임명한 것이다. 국회의원과 정당의 통제력에 관한 연구가 부상되는 대목이다.

③ 민족적 민주주의

CBS통신사의 조오지 핸드릭스기자가 JP에게 민족적 민주주의에 대하여 물었다. 그는 그 물음에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민족주의 그것은 국민으로 하여금 새로운 국가를 건설하는데 있어 과연 자신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깨닫게 하려는 노력에서였다. 말하자면 스스로의 입지적인 조건을 다질 수 있는 주체성을 되살리려는 생각에서였다... 자급자족없이 건전한 민주주의가 구현될 수 있겠는가?” 발전기에 들어선 현시점에서 그의 ‘민족적 민주주의’ 연구는 가치를 더 높여 줄 것이다.

3. 민족증흥과 조국근대화

① 민족증흥

(1) 한일회담

1962년 김-오히라 회담에서 이뤄낸 6억달러+알파는 1965년 양국 외무부간 협정타결 과정에서 8억달러로 조정되었다.

(2) 파독 광부, 간호사

우리나라의 광부들과 간호사들을 독일에 파견하여 경제발전의 발판을 마련하였다.

(3) 월남 파병

미국 상원의원들과 월남파병문제를 토론하면서 박대통령에게 건의, 1966년까지 전투병력 3개사단이 뛰어 들어 본격적으로 월맹군과 전투를 벌인 것이다.

그 피의 대가가 민족증흥의 역사를 창조하게 된 것이다.

② 조국 근대화

(1) 경제 재건과 기업인

JP는 부정 축재자 기업인들을 석방하여 경제재건에 앞장

서게 한 것이다. 그리고 경제인 연합회를 결성케 하고 회장에 이병철사장이 맡도록 하고 이들이 외자유치와 일감을 따 오도록 후원해준 것이다. 남궁련 사장은 해운업의 개척자로 부상했고 이병철 회장은 전자공업을 선택, 오늘의 삼성전자를 키운 것이다. 정주영 회장의 꿈은 자동차 공업이었는데 정부에서는 성공이 어렵다고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을 대통령에게 정주영회장과 동행 설득하여 1975년 국산 포니차가 탄생되었다. 대우는 조선업과 자동차공업을 다양하게 손을 대게 하여 조국 근대화의 길을 경제 부흥으로부터 착수한 것이다.



▲ 1967년 제6대 대통령선거에서 박정희후보지지 연설 모습. 주전자 물을 컵에 따르며 “우리나라가 성장을 하고 나면 이 컵에 물이 넘치는 것만큼 복지를 누릴 수 있다”고 말했다.

(2) 수출입국輸出立國

5.16혁명의 과업은 ‘조국 근대화’였고 근대화의 첫 번째는 경제발전이었다. 혁명계획서에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해 나갈 기관으로 경제기획위원회를 그려 넣었다. 중앙정보부장인 JP는 실업인들을 만나 애로점을 파악하고 격려하기 위해 전국을 누볐다. 1964년 11월30일 수출 1억달러를 돌파했다. 이제 우리나라는 1조달러 규모의 무역 대국으로 발전하였다. ‘경제발전과 정치인의 리더십’을 연구하여야한다.

4. 독재정치와 2인자

① 3선개헌과 독재정치

1963년에 제정된 헌법은 대통령의 임기를 중임에 한하도록 정하였다. 그런데 박대통령과 그의 측근들은 대권 연장에 대한 집념으로 경계를 시작하였다. JP는 돌연 ‘일체의 공직에서 물러나겠다’고 폭탄 선언을 한 것이다. 1969년 공화당 당무회의는 공식적으로 3선 개헌안을 채택하였다. 그리고 반대자들을 설득한 것이다 그는 마침내 개헌지지로 돌아섰다. “그걸 못막은건 죄송합니다. 박대통령께서 이 나라가 허리를 펴 수 있게 만들겠다고 생각을 굽히지 않을 때는 ‘죽어도 같이 죽겠다’고 생각한 내가 따라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나는 유교적인 집안에서 자랐기 때문에 ‘임금이 임금이지 않더라도 신하는 신하다워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후일 조선일보 심양섭기자에게 한 말이다. 만일 그가 동지들과 끝까지 막았더라면 숙청을 당했는지 대통령 자리에 올랐을지도 모를 일이었다.

② 유신과 김종필 총리

1972년 7월 4일 이른바 ‘7.4 남북공동성명’을 남북한이 동시에 발표한 것이다. 박대통령은 10월 17일 전국에 계엄령을 선포하고 유신維新을 단행하였다. 이어서 12월 27일 대통령 취임식과 함께 유신헌법을 공포하였다. 대통령 선거과정과 새헌법 발표일정에서 김종필 총리는 국무회의를 통해 행정적인 절차를 차질없이 진행하였고 국무총리의 자리를 연임하고 있었다. 유신헌법 제63조2항에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고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統轄한다”고 하였다. 정부권한의 2분 원칙이 적용되고 있는 것이다. 어쨌든 행정권을 인정받고 국회 앞에 책임을 지는 국무총리가 설정되었다는 것은 대통령제가 그만큼 변질되었다는 의미이다. 대통령 책임제를 고집하는 박정희가 의원내각제의 장점을 살려보자는 뜻을 가진 JP의 의견을 들어주는 듯한 인

상을 풍기며 박대통령의 후계자로 JP를 공식 인정하려는 모습을 보여 주기도 한 것이다. 그러나 박대통령은 1979년 10월 26일 김재규에 의해 시해被害된다. 독재정치와 2인자는 정치사적 연구와 함께 정치학의 연구대상이다.

5. 의원내각제

① 3당합당 선언

JP는 11월12일 당무회의에서 공화당의 총재가 되었다. 그의 정당에서 세 번이나 추방 당했고 두 차례나 정계에서 은퇴했던 공화당을 손에 넣은 것이었다. 그리고 유신헌법에 의해 경선을 통해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도 사양했다. 그리고 12.12 전두환 유혈 쿠데타로 그는 서빙고 분실에 갇힌다. 그리고 1987년 10월30일 신민주공화당을 창당하고 총재로 취임, 대선후보로 나서 180만표로 4위로 낙선했다. 그리고 1988년 13대 총선에서 35석을 획득 원내4당으로 부상했다. 1990년 1월 민정당의 노태우대통령, 민주당의 김영삼총재, 공화당의 김종필 총재가 의원내각제 추진을 전제로 3당 합당을 선언했다.

② DJP연합

JP는 대해서 “새로운 정치를 바라는 국민에게 부응할 수 있도록 타협과 조화를 통해 모처럼 얻어낸 민주화의 뿌리를 탄탄히 내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여소야대의 정국에서 의석수가 제일 적은 자신이 “누구도 독주할 수 없는 4당 체제에서 캐스팅보트를 쥐고 정국을 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그는 편지를 통해 ‘3당공존 총재회담’을 열고 노태우 대통령과 양당합당과 내각제 개헌전략을 마련하고 3당 합당을 추진 한 것이다.

1993년 대통령이 된 김영삼은 내각제를 버렸고 JP는 그와 결별, 1995년 자유민주연합을 창당하여 총재에 취임,



▲ 중앙정보부장 시절 한일회담을 앞두고 1962년 12월 방한한 일본 오노 특사와 요담.

6월 지방선거에서 광역단체장 4군데에서 승리했다. 다음 해인 1996년 4.11총선에선 50석을 얻는 돌풍을 일으킨 것이다. 5월26일 '신한국당 의원 빼가기 규탄대회'에서 DJ와 JP는 함께 연설을 했고 의원내각제 추진을 전제로 DJP 연합은 성공을 거두고 김대중은 대통령 당선의 숙원을 풀었다.

6. 'JP정치학'의 구성 주제

JP정치를 정리하다 보니 한국정치사의 전 영역을 학문적으로 연구한 성과를 얻게 된 것이다. 그뿐 아니라 그가 시도했던, 그리고 달성했던, 또한 실패했던 정치영역은 정치학의 연구대상인 것이다. 그리고 JP정치의 '단계적 위업'은 'JP정치학'의 각론各論에 해당 된다는 견해다. 이에 'JP정치학'의 구성을 위한 구상을 밝힌다.

제1장 연구 방법론

JP정치의 연구 방법론은 정치학 연구 방법론과 정치사학 연구 방법론을 병행하여야 한다. 정치학 방법론은 JP가 창조하고 경험한 체제와 제도론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성과를 거둘 것이다.

제2장 민족적 민주주의

① 민족적 민주주의의 이념 ② 쿠데타와 혁명 ③ 중앙정보

부와 정치 경찰 ④ 정당론. 민주공화당 창당과 변질

⑤ 자의반 타의반 망명과 외유, 현지 정책건의

제3장 민족중흥과 조국근대화

① 민족중흥

(1)외교론-JP의 외교 (2)한일회담 (3)파독 광부, 간호사 (4)월남 파병

② 조국 근대화

(1)경제재건과 기업 지원 (2)수출입국 (3)JP의 복지정책

제4장 독재정치와 2인자

① 절대권력과 2인자 ② 3선 개헌과 독재정치

③ 유신과 김종필총리

제5장 의원내각제

① 직선제 대통령의 선택 ② 소수정당과 정국주도

③ 보상報償과 보은報恩의 정치 ④ 의원내각제의 주창과 추진

7. 맺는 말

JP정치의 연구는 'JP정치학'의 구성을 위한 구상에 이르게 되었다. 이에 윤정雲庭재단 집행부에 제안한다. 'JP정치학' 포럼회를 조직, 몇 번의 세미나를 거쳐 분야별로 신진 학자들을 대거 참여케 하여 출판을 서둘러 간행하자는 것이다.

'JP는 역사다'라는 정의는 오늘날의 정치현상과 주형적鑄型的으로 부합되고 있는 것이다. JP연구에 있어 사료는 중앙일보가 2014년부터 일주에 한 번씩 인터뷰를 통해서 '소이부답笑而不答'증언기사로 12월까지 114회라는 장문의 글을 기사로 실렸고 다시 "김종필 증언록"으로 출판하였기에 1차 자료로 충분하다. 그리고 필자의 줄거拙著 '현대 정치사와 김종필'을 부수된 참고서까지 덧붙이면 1차 자료는 충분 할 것 같다.

우리는 JP 정치를 체계적으로 연구하여 학자는 강단에서, 정치가는 실제에서 우리나라에 '의원내각제 정부'가 수립되도록 하여 '정치는 허업이다'가 아닌 '정치는 창조적 예술이다'고 껄껄 웃는 JP를 연상하면서 'JP정치학'의 탄생을 기대 해본다.